

“전국 투어 출발합니다”

임영웅, 인천 송도컨벤시아서 콘서트 ‘아임 히어로’

발라드·댄스·컨트리 등 망라...“힘들고 지친 분에게 위로가 되길”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언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음악 보따리를 들고 ‘영웅시대’ (팬덤명) 결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정규앨범으로 이전보다 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을 마음껏 펼쳐내며 가을에 잘 어울리는 무대를 선사했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전국투어 ‘아임 히어로’ (IM HERO)에서 “2023년 이후로 약 2년 만의 투어인데, 정겨운 분위기가 참 좋다”며 “임영웅 리사이틀” 이후 약 10개월 만의 공연인데, 무대에서 정말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힘들고 지쳤던 분이 있다면 오늘 위로를 받고 쉽게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19일까지 3일간 열린 인천 콘서트로 새 전국투어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투어는 특히 8월 정규 2집 ‘아임 히어로 2’ (IM HERO 2) 발매 후 처음으로 열리는 콘서트로서 큰 관심을 모았다.

임영웅은 이날 거대한 범선 모양의 무대를 타고 신나는 느낌의 2집 수록곡 ‘원더풀 라이프’로 무대를 연 뒤 ‘나는야 히어로’, ‘런던 보이’ 등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그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다”며 “오랜만에 환한 목소리를 들어 보겠다”고 인사를 건네자 객석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임영웅은 무대 가까이 다가가 관객과 눈을 마주치며 “얼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다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특급’ 팬서비스도 선보였다.

이번 콘서트에서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여러 장르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임영웅의 음악이었다.

심금을 울리는 2집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과 발라드 ‘들꽃이 될게요’, 컨트리에 도전한 ‘나는야 히어로’, 밴드 사운드가 돋보인 ‘런던 보이’, 힘하고 세

련된 느낌의 ‘답장을 보낸지’ 등에서 마치 경극 배우가 시시각각 가면을 바꾸듯 노래 장르와 분위기에 맞춰 목소리를 내는 임영웅의 역량이 돋보였다.

도회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수록곡에 ‘얼씨구’ (ULSSIGU)라는 토속적인 감탄사를 제목으로 붙이는 재치도 돋보였다.

임영웅은 이처럼 여러 장르의 노래로 보컬 역량을 뽐냈지만, 무대 하나하나에도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를 빼놓지 않고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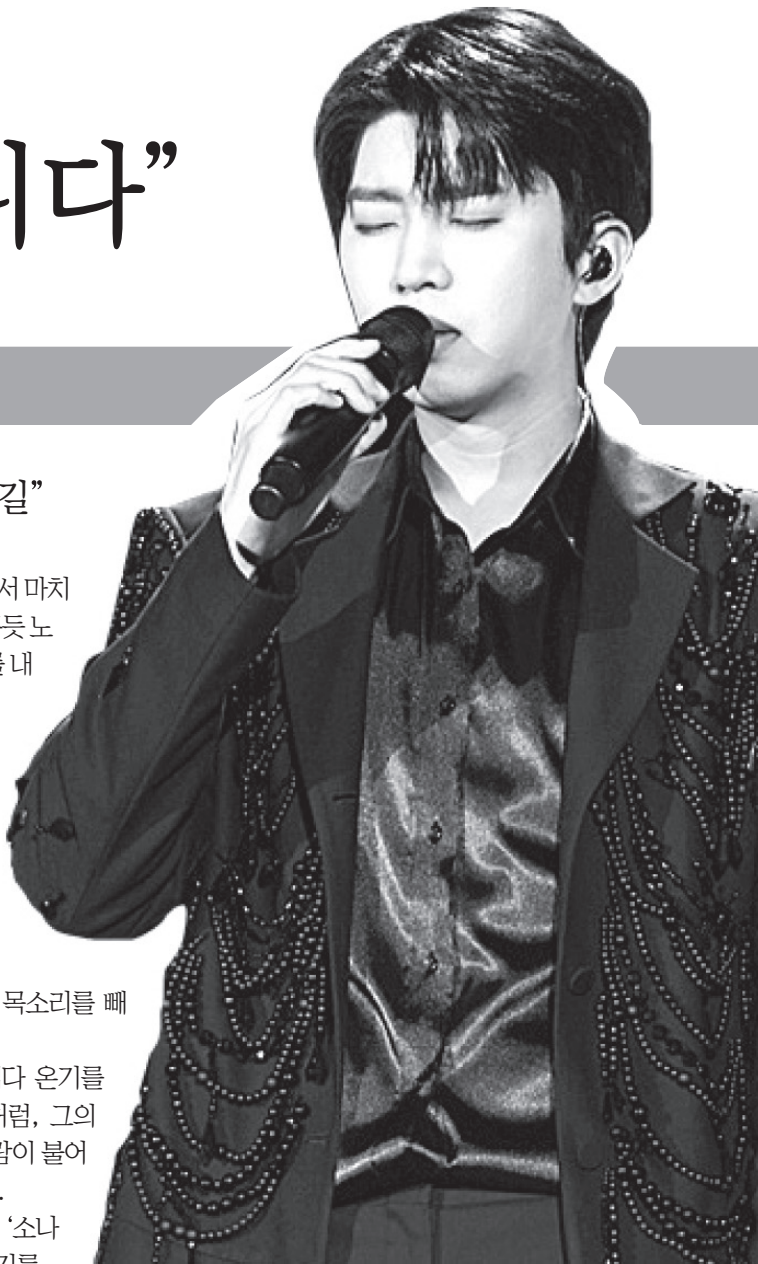
꺼진 줄 알았던 화투불을 해집다 온기를 가득 머금은 불씨를 찾아낸 것처럼, 그의 포근한 목소리는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 오는 요즘 계절에 딱 잘 어울렸다.

임영웅은 2016년 ‘미워요’와 ‘소나기’로 데뷔한 뒤 한동안 무명 시기를 보내다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화려하게 우승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막강한 인기는 솔로 가수로는 국내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이날 ‘돌아보지 마세요’·‘보금자리’ 같은 트로트곡도 불러 팬들의 반가움을 더했고,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익숙한 히트곡도 들려줘 관객의 열띤 환호를 끌어냈다.

임영웅은 2집을 언급하며 “정말 오래 심혈을 기울여 만든 2집 앨범인 만큼 타이틀곡 선정이 쉽지 않았다”며 “‘얼씨구’를 타이틀곡으로 하려다 너무 실험적인 음악으로 하면 팬들은 좋아하겠지만 대중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임영웅이 늘 하는 메시지 있는 곡을 타이틀곡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살이란 사랑하고 보내는 일의 연속이다. 원하던 원치 않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다”며 “만남이 기쁘고 설렌 만큼, 이별의 아픔이 오래 간다. 있을 때



더 많이 웃고, 사랑하고, 행복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공연은 임영웅이 숨겨둔 춤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공연장 삼면을 둘러싼 대형 LED와 드론을 이용한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콘서트가 열린 송도컨벤시아 인근은 수은주가 ‘뭉’ 떨어진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일찌감치 팬들이 몰려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팬들은 임영웅을 상징하는 하늘색 의상을 갖춰 입고 ‘너만 보여 임영웅’, ‘얼씨구 좋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들뜬 표정으로 공연을 기다렸다.

임영웅은 이날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을 향해 가을 들녘처럼 넉넉한 위로와 응원을 선물했다. 이날 무대에서 들려준 ‘우리에게 안녕’ 가사 그대로였다.

“안녕, 안녕 오늘을 살아온 우리에게 / 뜨거운 박수를 보내 / 안녕, 안녕 / 내일은 조금 더 환한 쪽으로 가요!”

/연합뉴스

다시 뜨거워진 ‘케데헌’

‘골든’ 英싱글 3위로 반등...지수 신곡 37위로 데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사진)의 오리 지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순위 반등을 이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전주보다 두 계단 오른 3위로 17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골든’은 6월 하순 93위로 차트에 처음 진입했으며 지난달까지 통산 8주 동안 1위를 차지한 후 하락하다 다시 순위를 끌어올렸다.

‘골든’은 특히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보가 각종 차트를 휩쓰는 상황에서도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케데헌’의 또 다른 OST ‘유어 아이돌’은 한 계단 하락한 10위를 기록했고, ‘하우 잇츠 단’은 12위로 차트에 재진입했다. 트와이스가 부른 ‘데이크 다운’은 여섯 계단 내려간 93위로 집계됐다. 블랙핑크의 지수가 워너비 출신의 팝스타 제인과 협업한 신곡 ‘아이즈 클로즈드’는 이 차트에 37위로 데뷔했다. 캣츠아이의 ‘가브리엘라’는 한 계단 오른 38위로 나타났고, 발매 1주년을 맞은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 (APT.)는 세 계단 하락한 67위였다.

/연합뉴스

새 생명 주고 떠난 백세희 작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저자, 5명에 장기기증

에세이집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를 쓴 백세희(사진) 작가가 사망했다. 향년 35세.

한국장기조작기증원은 백 작가가 16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최근 밝혔다.

백 작가는 심장, 폐장,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했다. 뇌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기본부전장애(가벼운 우울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를 진단받고 담당의와 상담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녹여낸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로 큰 사랑을 받았다.

출판사 측에 따르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1·2편을 합해 국내에서 약 60만부 정도가 팔렸고 약 25개국에 수출됐다.

백 작가는 다른 작가들과 함께 ‘나만큼 널 사랑할 인간은 없을 것 같아’ (2021), ‘쓰고 싶다 쓰고 싶지 않다’ (2022) 등의 책을 펴냈고 토크콘서트, 강연회 등을 통해서도 독자와 소통했다. 여성 작가 12명의 작품 속 인물 이야기를 엮은 ‘마음은 여름 햇살처럼’ (2024)과 소설 ‘바르셀로나의 유서’ (2025)를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재회한 옛 연인과 다시 ‘사랑’

박서준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연말 방송 예정

배우 박서준이 새 드라마에서 세파에 찌든 신문기자 역할을 맡는다.

JTBC는 최근 올 하반기 방송될 새 로맨스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박서준과 원지안이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경도를 기다리며’는 동운일보 연예부 차장 이경도(박서준 분)와 전 여자친구 서지우(원지안)가 불륜 스

캔들 보도를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풋풋한 스무살과 스물여덟살에 두 차례 사귀었던 옛 연인이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를 유쾌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드라마 ‘킹더랜드’의 임형욱 PD가 연출을 맡았고, ‘서른, 아홉’, ‘신성한, 이혼’의 유영아 작가가 극본을 썼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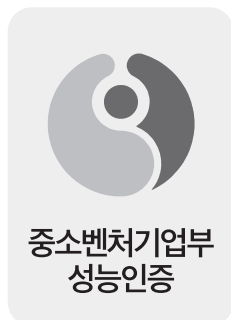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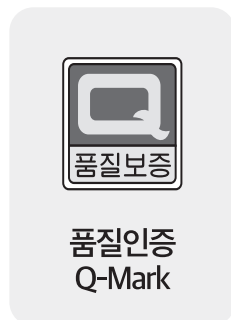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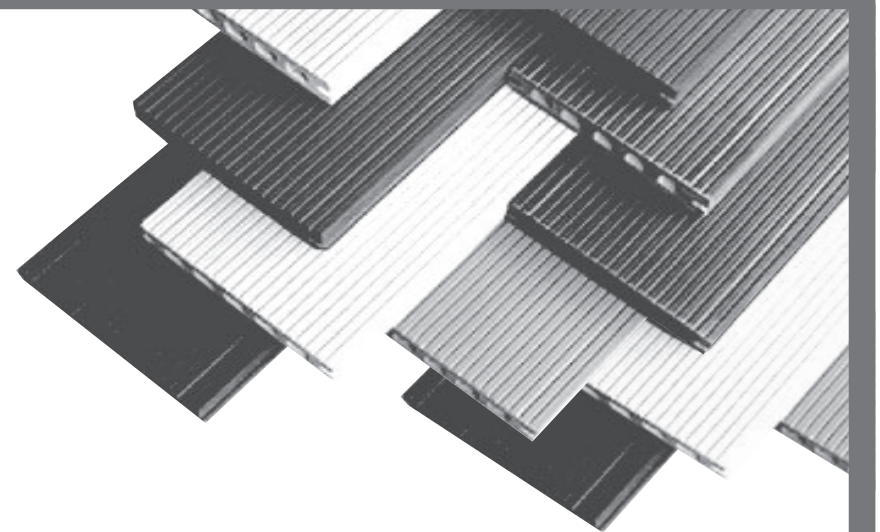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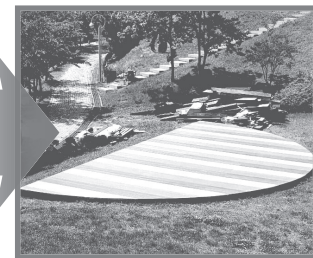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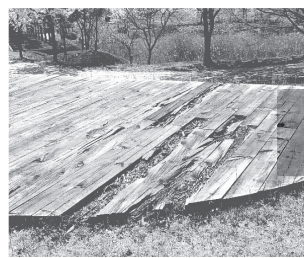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